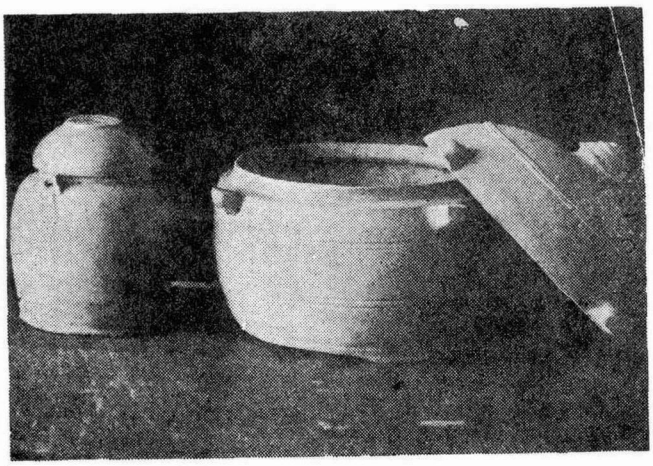
慶州出土 骨壺의 新例

秦 弘 燮



一九六〇年 十二月 二十六日 慶州에서 멀지않은 月城郡 內南面 拜里 即 三陵 東南方 約 二〇〇m 地點에서 骨壺 一個가 發見되었다。 이 骨壺는 二重이며 內壺 蓋가 깨지기는 했으나 完形을 이룰 수 있고 壺底에는 아직도 骨粉이 남아 있었다。

外壺 表面에는 特別한 裝飾이 없고 二條平行의 陽刻線이 身蓋에 二處씩 있을 뿐이나 蓋 中心에는 三段으로 나타낸 圓鈕가 있고 그 頂部는 內部와 貫通되었다。 蓋와 身을 固定시키기 위한 귀가 네곳에 있으나 圓을 正確히 四等分해서 配置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上下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맞는 귀에는 上下에 × 或은 井의 表를 해놓았다。 色은 灰黑色이고 바닥은 굽이 없이 편평하다。

內壺는 蓋·身 共히 全面에 青綠色 釉藥을 입혔다。 胎土는 白色이고 燒成度도 相當히 높아 外壺의 類가 아니다。 釉藥은 매우 고와서 진하고 엷은데가 없다。 蓋는 뒤집어서 구었고 壺속에는 다른 그릇을 넣어서 함께 구어낸 자리가 있다。 蓋에는 아무 裝飾이 없으나 身部에는 角形 兩耳가 있고 그 밑으로 周緣에 連珠文을 둔 花紋이 있고 器形은 밑이 빠지지 않고 밋밋하게 내려갔다。

新羅時代 骨壺로서 二重으로 된 것이 全然 없는 것은 아니나、아직까지의 出土例로 보아、內外壺가 陶質이나 裝飾文이 同一하지、陶質이 이와 같이 全然 다른 것을 使用한 例가 없을 뿐 아니라 內壺의 青綠釉壺는 出土例가 없었던 것이다。 內壺 兩耳밑의 裝飾은 그 形態가 慶州地方 古墳에서 發見된 杏葉과 同一하며、器形이 비록 高麗時代 土器나 青瓷器 瓶과 같이 밑이 빠지지 않아서 優美한 맛은 없으나 그 先軀가 되지않을가 한다。 外壺는 陶質、外形、紋樣이 同一한 出土例가 있어 慶州博物館에 陳列되어 있으나 內壺는 骨壺로서 뿐만 아니라 器皿으로서도 그 例가 없어 매우 貴重한 것이다。 製作年代는 新羅末期로 생각된다。

	外壺	內壺
全高	三三·七cm	二四cm
身高	二〇·一cm	一九·四cm
蓋高	一五·五cm	五·二cm
身口徑	二八·八cm	一三·五cm
蓋徑	三二·二cm	一四·二cm
胴徑	三三·三cm	一九·三cm

佛頭 二例

洪 思 俊

百濟佛像은 土製、石製、金銅製 乃至 銀製、四種만을 볼 수 있는데 그